

1兆 유니콘 쏘카, 기업공개 나선다... 입찰제안서 발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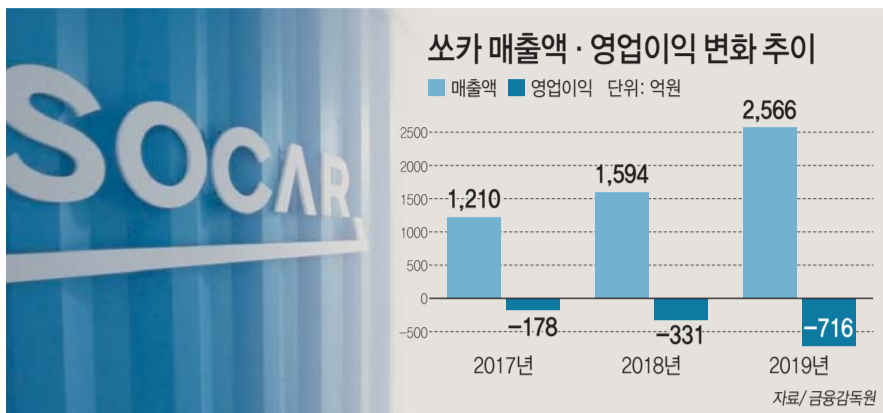
11월 기준 누적회원 630만명 보유
합리적 요금 등 소비자에 큰 호응
코로나 여파에도 평균 이용시간 ↑

차량 공유 스타트업 기업인 '쏘카'가 기업공개(IPO)에 나섰다. 쏘카는 기업 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쏘카의 증시 상장이 국내 모빌리티 업계에 새로운 훈풍을 가져올지 이목이 집중된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쏘카가 다수의 증권사에 입찰제안요청서(RFP)를 발송했다고 전했다.

쏘카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RFP를 발송한 단계"라며 "주관사 선정 이후 구체적인 상장 일정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국내 모빌리티 업계 첫 유니콘 기업
쏘카는 국내 12번째, 모빌리티 업계 첫 유니콘 기업이다. 유니콘 기업은 통상 기업 가치가 1조원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을 의미한다. 쏘카는 지난 달 사모펀드인 SG프라이빗에쿼티, 송



현인베스트먼트로부터 600억원의 투자유치를 성공해 누적 투자유치금액 3300억원을 달성했다. 당시 평가한 기업가치는 약 1조1000억원이다.

지난 2011년 설립된 쏘카는 차량 100대로 제주도에서 카셰어링(Car Sharing·차량 공유) 서비스를 시작했다. 11월 기준 서비스 차량은 1만2000대로 늘어났으며, 누적 회원 630만명을 보유 중이다.

특히 쏘카는 카셰어링 부문에서 최소 30분부터 10분 단위로 부과되는 대여요금, 이용에 따른 보험료, 주행 거리에 따

라 부과하는 주행 요금 등 차량을 이용한 만큼만 과금하는 합리적인 이용요금 시스템으로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하루 단위로 차량을 빌릴 수 있었던 기존 렌터카 업체와 가장 큰 차이점이다.

한편 쏘카는 이재웅 전 대표가 지난 2011년 대주주로 투자해 세워진 회사다. 이재웅 전 대표는 포털사이트 '다음(Daum)'을 창업해 자본 전량을 카카오에 매각한 후 현재 스타트업 투자에 매진하고 있다. 이 전 대표가 쏘카의 대주주로 있어 그의 다음 행보에 금융투

자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다양한 서비스 확장"

쏘카는 꾸준한 매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아직까지 적자 상태다. 지난 2019년 매출액은 256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97% 가량 증가한 반면, 영업손실이 716억원이다.

지난 2018년에는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기존 택시업계와 마찰을 겪어 영업손실을 겪기도 했다. 쏘카가 차량을 제공하고, 자회사 VCNC가 기사와 승객을 연결해 주는 시스템이었으나 여객자동차법 개정으로 인해 서비스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후 쏘카는 ▲운행일지, 자동 결제 시스템을 가진 법인용 카셰어링 서비스 '쏘카 비즈니스' ▲차량 주인과 게스트를 직접 연결해주는 '쏘카 페어링' ▲한달 단위 중장기 기간제 대여 서비스 '쏘카 플랜' 등 다양한 카셰어링 서비스를 내놨다. 또 ▲차를 미리 타보고 소비자 검증 후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 '캐스팅' ▲베타 서비스 중인 가맹 택시 서비스 '타다 라이트' ▲대리기사 중개 서비스 '타다 대리' 등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단순한 카셰어링 업체를 넘어서 '모빌리티 종합 플랫폼'으로 나아간다는 계획이다.

쏘카 관계자는 "다른 모빌리티 유니콘 기업 후보들과 비교했을 때 카셰어링 사업자는 쏘카만이 가지고 있다"며 "쏘카는 카셰어링 서비스에 실제 회사가 보유한 자동차를 투입할 수 있는 회사다. 카셰어링 서비스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쏘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오히려 평균 이용 시간이 늘었다. 쏘카에 따르면 평균 이용 시간은 2016년 4.91시간에서 2020년 9.86시간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쏘카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대중 교통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겨 이용 시간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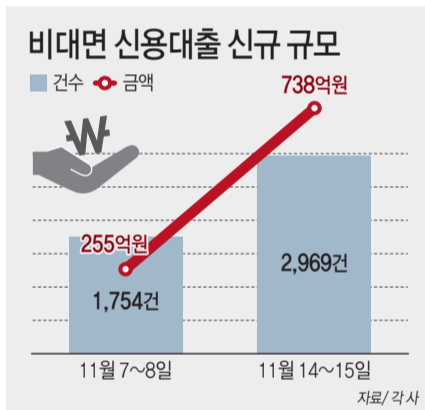
"규제 전 막차타야" 주말동안 신용대출 3배 ↑

규제대상 변화에 대출문의·수요 급증
금융권, 30일까지 신용대출 증가 전망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신용대출 규제를 예고하면서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막차수요가 몰리고 있다. 주말 동안 비대면 신용대출은 3배 이상 늘고 은행창구는 대출 관련 문의가 증가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16일 기준 신용대출잔액은 130조5604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이 신용대출 규제 강화책을 발표하기 전날인 12일과 비교해 1조12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이번 신용대출은 주로 비대면으로 이뤄졌다. 14~15일 이들 은행의 비대면 신용대출은 총 2969건으로 738억원이 실행됐다. 일주일 전인 7~8일(1754건·255억원)과 비교해 건수는 1.6배, 금액으로는 2.8배 증가한 규모다. 평균 대출액도 1454만원에서 2485



만원으로 1.7배 증가했다.

A은행은 일 평균 신용대출 금액이 357억원에서 대출규제 예고 이후(13~16일) 447억원으로 늘었다. 주말을 포함해 일 평균 신용대출 수요가 100억원가량 증가한 것. B은행은 14~15일 이들 동안 304억원의 신용대출이 이뤄져 전주(약 70억원)와 비교해 4배 이상 증가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는 15~16일 신용대출 신청고객이 일시적으로 몰리

면서 접속지연 현상이 나타났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규제 강화책이 주말을 앞둔 금요일 오후에 발표돼 은행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주로 비대면 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추세는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오는 30일까지 신용대출은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처럼 신용대출이 증가한 이유는 신용대출 규제대상이 시행일인 30일 전후로 확인하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신용대출 규제는 신용대출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 집값을 끌어올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신용대출을 1억원 이상 받은 개인이 1년 안에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14일 안에 신용대출을 갚아야 한다. 여기에 연 소득 80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이하 규제를 받는다. 이 규제가 적용되면

고객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고소득자는 상환능력이 있어도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없다.

다만 이 같은 규제는 30일 이전에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제외다. 미리 대출을 받아두고, 이를 단순히 연장, 금리만 조건만 변경해 재조정하는 경우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마이너스 통장은 규제가 시행되면 실제 사용한 금액이 아니라 약정한 금액이 신용대출 총액으로 계산된다. 30일 이전에 신용대출을 받아두거나 마이너스 통장한도를 확대해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대안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차주의 상환능력평가와 리스크 관리는 은행의 핵심역량"이라며 "이처럼 대출 규제가 강화될 경우 고소득자보다 오히려 생활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나누리 기자 yul115@



코스피 2545.64 마감 2년 9개월만에 최고치

코스피지수가다시 연중 최고점을 다시 경신했다.

18일 코스피지수는 전일보다 6.49포인트(0.26%) 상승한 2545.64에 거래를 마쳤다. 증가 기준으로 지난 2018년 2월 1일(2568.54) 이후 2년 9개월 만에 최고치다.

이날 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 940억원, 기관은 516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이날까지 10거래일 연속 순매수 행진이다. 개인은 1265억원을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의약품(2.72%), 음식료업(2.70%), 보험(1.96%) 등이 상승했고, 의료정밀(-1.62%), 유통업(-1.11%), 전기가스(-0.93%) 등이 하락했다.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4.91%), LG화학(3.35%), 네이버(2.18%) 등이 상승했고, 현대차(-1.63%), 삼성전자(-1.37%), 삼성전자(-0.85%) 등이 하락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4.91%)는 전일 대비 3만8000원 상승한 81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는 전일 대비 12.27포인트(1.46%) 상승한 851.74에 장을 마감했다.

/박미경 기자

코로나 313명 신규 확진, 집단감염 속출

8월 말 이후 81일만에 300명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300명대로 급증했다. 300명대 확진자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본격화했던 지난 8월 29일(323명) 이후 81일 만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13명 늘었다고 밝혔다. 전일(230명)보다 83명이나 늘어났다. 신규 확진자 수가 세 자리를 나타낸 것은 이날 8일(143명) 이후 11일째다. 이 중 지역발생이 245명으로 전일보다 43명 증가하며, 8일 연속 세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다.

서울 91명, 경기 81명 등으로 수도권에서만 181명이 나왔다.

특히 수도권 집단감염이 거세지면서 확산세가 빨라질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방대본에 따르면 최근 2주간 집단감염으로 등록된 사례는 이 기간 신규 확진자의 40% 정도를 차지한다. 전체 지역발생 확진자 중 70%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은 "5명 이상 집단으로 분류되는 건이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10건 정도 발생한다"며 "기존에는 종교시설, 콜센터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점차 거세지면서 18일 신규 확진자 수가 300명대로 급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13명 늘어 누적 2만9천311명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등 노출자를 파악하기 쉬운 집단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는데 지금은 주점, 식당, 실내체육시설, 다편을 사용하는 오피라인 모임 등을 통해 전파가 일

어나는 상황이라서 이전보다 노출자를 추적하는데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가고, 또 그 속도를 따라잡기가 쉽지 않다"고 경고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